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당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6. 15.(목) 06:00 < 6.15.(목) 석간 > 배포 2023. 6. 14.(수)

중남미 관문 에콰도르와 경제협력 확대한다

- 한-에콰도르 통상 장관 회담에서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진전 및 교역·투자 확대 논의

정부는 중남미 유망 투자처이자 자원 부국인 에콰도르와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등을 통해 교역 및 투자 진출, 공급망 협력 등 포괄적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상대국과 협의에 따라 FTA 대신 SECA 용어 사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15일(목) 서울에서 방한 중인 홀리오 호세 프라도(Julio Jose Prado) 에콰도르 생산통산투자수산부 장관과 회담하고 ▲우리나라와 에콰도르 간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협상 진전 방안, ▲교역 및 투자 진출, 공급망 협력 등 다각적인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양국은 지난해 7월 6년여 만에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협상을 재개한 이래 네 차례의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 협상을 집중하여 개최해 왔으며, 지난 4월 서울에서 있었던 제9차 공식협상에서 양측의 핵심 품목 양허를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을 해소하는 등 입장 차를 좁혀 왔다. 양측은 잔여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조만간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을 선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와 에콰도르 간의 교역 규모는 9.8억 달러였으며, 이 중 우리나라의 수출은 7.7억 달러, 수입은 2.1억 달러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정제유(휘발유, 경유 등), 자동차·부품, 의약품 등이고 원유, 농수산물, 광물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어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교역 관계가 있다.

* 양국 상호 교역액(백만 달러): ('19) 729 → ('20) 469 → ('21) 968 → ('22) 981

에콰도르는 개방형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으며 미국 달러를 기본 화폐로 사용하여 환율변동위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중남미 투자·진출 거점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부존자원 측면에서도 에콰도르는 원유(중남미 3위 매장량), 구리·아연·금 등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향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담당 부서	자유무역협정교섭관실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박근오 (044-203-5940)
		담당자	사무관	모덕춘 (044-203-578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